

# 전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 도部 우수기관 선정... 78개 평가 정량지표 중 69개 달성 88.5% 높은 성과 기록

지난해 전북도의 지방행정 점수가 광역자치단체 도(道) 단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행정안전부 등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부(道部)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78개의 평가 정량지표 중 69개의 지표를 달성하며, 88.5%의 달성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산업·과학 분야)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안보·보안 분야)에서 최고점(100%)을 기록했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마을자치·농축산 분야) 또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95.9%) 달성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등 재정상황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적을 높였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와 시·군은 수시로 변경되는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에 따라 도와 시·군의 합동 워크숍, 대응 컨설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함께 노력한 시·군에 이를 배분해 내년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아직 인센티브 규모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7억9,900만원, 2019년 8억7,3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민선 7기 후반기에 정부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향후 도정 전반을 이끌어 나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 합동평가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4기 교육생 모집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창업 농업인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을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 후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 심사를 통해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한 후, 전북 김제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원은 김제 백구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원의 실용농업교육센터(첨단 유리온실)의 강의실, 교육 실습기자재, 교육형 작물재배 온실 장비 등을 활용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원은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8월 말부터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복합환경제어 운영, 병해충관리, 온실 설비, 경영·마케팅 등의 이론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 경영실습과정 1년으로 총 20개월간 진행된다.

도는 지난 2018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시작으로 11명 수료생이 자가 경영 및 취업을 했고, 현재 96명이 교육형 실습과 자기 주도하에 경영형 실습을 진행 중이다. /유호상 기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수행실적 우수자, 3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063-290-6434)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전북, 올해 들어 4번째 황사 유입...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8일 15시부로 도내 중부권역과 동부권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26일과 27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국내로 유입된 영향으로, 28일 15시 순창군이 196, 전주시 186, 완주군 185, 임실군 184  $\mu\text{g}/\text{m}^3$ 로 '매우 나쁨'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들어 도내에 영향을 준 황사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9년 2회, 2020

년 2회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황사가 발생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야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욱

- 참가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 기 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시: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원: 전라북도, 꿈드래곤장애인협회,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해 서울시와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28일 체결했다.

## 전북도, 서울시와 마이스 공동 마케팅 나선다

### 상호 교류협약 체결... 마이스 경쟁력 강화 · 상품 개발 · 운영 등 협력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해 서울시와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마이스산업의 조기 회복과 새로운 협력을 통한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마이스 개최도시인 서울시와 함께 마이스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양 시·도는 상호간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와 마이스 인프라를 연계 활용해 마이스 상품

개발·운영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전북은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생태문화시대 대축전이 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개최해 생태 자연과 인간다운 문화를 기반으로 '여행체험 1번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연계한 마이스 관련 행사 유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과제는 ▲마이스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마이스행사

의 양 시·도 투어프로그램 지원,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여일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전북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마이스행사를 유치해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농업 분야 환경 보전 활동 앞장

### 주민이 농촌환경 보전 활동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시범사업 도내 3개 마을서 실시

전북도가 도내 3개 마을(무주군 잠두마을, 기곡마을, 순창군 대정마을)에 대한 '농촌환경 보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 인식 제고와 환경 보전형 영농활동의 컨설팅과 실천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무주군 잠두마을, 기곡마을과 순창군 대정마을 등 3개 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마을당 5년간 총 6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마을에는 농업환경진단, 주민 컨설팅, 사업 시행계획 수립부터 환경보전

활동에 드는 개인 및 공동활동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활용된다.

마을 주민이 농촌환경 보전 활동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개인별로 토양검증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주면 ha당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농업부산물을 농경지에 환원하면 ha 당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활동을 통해 하천 및 저수지를 청소하고 수생식물 심으면 시간당 1만원(자재비 별도),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배출 시 시간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 1명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토양·용수·생태 등 마을 주변의 농업환경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항목들을 사업 시행 계획에 반영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들의 환경개선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도는 향후 점차적으로 농업환경 진단을 통한 사업성과를 측정해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 생물다양성 증대,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등에 이번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우리 농업 분야부터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내 다른 마을에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